# 주 일 예 배

오전11시, 오후3시 예배인도 이진우 목사

| | | |
|---|---|---|
| 찬 양 | 내 평생에 가는 길(470)<br>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데서(469) | 다 같 이 |
| 조용한기도 | Prayer | 다 같 이 |
| 찬 송 | Hymn 23 | 다 같 이 |
| 기 도 | Prayer | 남관희 성도 |
| 교회소식 | Announcement | 인 도 자 |
| 성 경 | 마가복음 5:21-43 | 인 도 자 |
| 설 교 | 믿음은 다른 사람의 응답을 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 이진우 목사 |
| 찬양과봉헌 | Hymn 340 | 다 같 이 |
| 축 도 | Benediction | 이진우 목사 |

■ 다음주 기도 : 박종갑 장로

## 예 배 와 모 임 안 내

| | |
|---|---|
| 주일1부 예배 | **오전 11시** |
| 주일2부 예배 | **오후 3시** |
| 수요성경공부 | **매수 오후7시(예정)** |
| 가정교회예배 | **매주 금요일(예정)** |

## 교 회 를 섬 기 는 이 들

| | |
|---|---|
| 목회사역 | **이진우 목사(Rev. Jin W. Lee)** |
| 행정사역 | **박종갑 장로** |
| 양육사역 | |
| 찬양사역 | |

## 【자유교회 Vision 소개】

■ **자유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유일한 담임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동역자입니다. 자유교회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지길 원합니다. 교회의 행정과 운영에 있어서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할 것이며 실험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란 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즉 교회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만약 교회가 부패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 건물이 노후했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우리 자신이 교회답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에 얽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회복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교회가 지켜야할 지상최대의 명령입니다. 가깝게는 지역사회로부터 크게는 세계 각처에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실제적으로 헌금의 50%를 선교와 구제 그리고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일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 받은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회복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권세와 문화에 좌우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2006년 10월 15일 제11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 LIBERTY COMMUNITY
# 자 유 교 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

**자유교회 Liberty Community Church**

**34617 8th Ave SW Federal Way, WA 98023**
**Tel (253)661-5436(fax), 227-1775**
**E-Mail: graceofjesus@comcast.net**

## 금주의 말씀요약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절박한 인생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절박한 인생의 문제는 결국 믿음으로 해결을 얻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깨닫게 되는 사실은 영혼을 가진 우리 인생의 문제는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러나 딸의 문제는 그가 가진 재물과 지위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야이로가 마지막 소망을 예수님께 걸고 예수님께 나아와 엎드렸습니다.

야이로에게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 위기가 없었다면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왔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경험하는 고난이나 고통이 주는 유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자기 위치에서는 예수님께 쉽게 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체면이라는 장벽이 있었고 다른 사람의 시각이라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겹겹이 둘러싸인 장벽을 뛰어넘었던 힘이 무엇입니까? 위기입니다. 고난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탄함과 풍성함 그리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척척 이루어지는 형통함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삶이 좀 더 풍성하면, 내 삶이 좀 더 여유로워지면, 내가 좀 더 성공하면 이전 보다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형통함이 우리를 넓게 하는 것 아니라 고난이 우리를 크게 만들고,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한계를 뛰어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넘을 수 없는 인생의 한계를 고난이라는 축복을 통해서 넘게 만드십니다. 딸의 질병은 야이로라는 회당장으로 하여금 도저히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께 엎드린 야이로의 간청을 듣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일분일초가 급하게 가는 도중 혈루증으로 괴롭힘을 당하던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곤 그냥 지나치실 만도 한데 예수님은 가던 걸음을 지체하시며 옷자락을 만진 여인을 찾으십니다. 주님의 지체함을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의도적인 지체하심을 통해 주님은 믿음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믿음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은 열두 해 혈루병 걸린 여인을 치료하면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끄시며 야이로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기다릴 수 있느냐! 네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겠느냐? 네가 아무리 급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고 있겠느냐?

그럼 어떻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신하며 인내할 수 있습니까? 열 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다가 인생을 포기해 버린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여인을 치료하시는 주님은 내 집에서도 동일한 역사를 행하실 걸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응답받고 축복받는 이웃들을 보면서 내 믿음이 강화될 수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란 남이 응답 받고 축복 받는 것 보면서 배아파 하는 것 아니라 내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만 문제가 심각해지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되었습니다. 딸이 죽고 만 것입니다. 야이로는 딸의 문제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이제는 딸이 죽었기 때문에 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싶으셨던 믿음은 딸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믿음이셨습니다. "네가 믿음을 가지고 나와 동행하겠느냐? 아니면 포기하겠느냐?" 회당장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회당장 마음에 회의가 생겼을 것입니다. "가야하나 말아야 하나..."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께서 회당장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제는 너 자신의 믿음이야. 딸 때문에 엎드린 믿음이 아니라 너 자신의 믿음이 있다면 너의 믿음을 보여줄 때가 되었어" 주님의 요구이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은 딸 때문에 주님을 찾은 야이로에게 딸의 질병 때문에 주님을 찾았지만 결국 문제해결의 열쇠는 야이로의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보인 믿음의 분량이 곧 내가 받을 은혜의 분량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임의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을 보였던 야이로가 죽음을 넘어서는 은혜를 체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보이신 믿음의 분량이 곧 저와 여러분이 누리실 축복의 분량입니다.

## 【자유교회 소식】

1. 자유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길 원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행정과 운영 그리고 우리의 삶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기 위해 기도합시다.
2. 지역사회 봉사와 선교를 위해 컴퓨터 교실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교회에 맞는 예배처소를 위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2007년부터는 새로운 예배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남관희 성도님이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16일(월) 출국하십니다.
5.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우리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자유교회 예배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253) 661-5436, 227-1775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주 헌금통계

| | | |
|---|---|---|
| 십 일 조: | $510.00 | |
| 감사헌금: | $70.00 | |
| 주일헌금: | $36.00 | |
| 특별헌금: | $10.00 | **합 계: $897.00** |

## 금주의 중보기도

- 자유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여 이민교회에 새로운 영적 파도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 좋은 예배처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 믿음과 열정으로 개척교회를 섬기는 교우들을 복주사 저들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